



# 문덕인쇄 제2공장 아인제책사로 새롭게 탄생

아인제책사(대표 박종하)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에 위치한 공장에서 거래처 관계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개업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아인제책사는 업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이름이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덕인쇄의 제2공장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문덕인쇄는 1973년에 문덕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3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견 인쇄사다. 이후 문덕인쇄공사를 거쳐 1984년에 법인으로 전환하며 지금의 문덕인쇄라는 상호로 변경됐다. 인쇄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캐나다 지사를 운영하는 등 인쇄물 수출에 앞장서 왔으며 1993년에 국제청 표창을, 1994년에는 수출진흥 표창을 받는 등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왔다. 현재 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 월간지를 비롯한 각종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획, 출력, 인쇄, 제책(중철, 무선), 납품까지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동·운영하고 있다.

## 요시노 고속 무선제책기 등 최상의 시스템 완비

아인제책사는 이미 문덕인쇄 제2공장 시절부터 전문 제책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 박종하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새로운 장비도입을 통해 각종 시설의 고속화를 이루는 일. 이는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의 경영철학이기

도 하다. 현재 이곳에는 하이텔베르그 스타 폴더 접지기 와 폴라 재단기 및 종이 추림기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아인제책사가 내세우고 있는 주력 제책 시스템은 요시노 고속 무선제책기(132형 30콤마)이다. 지난 4월에 도입한 이 장비는 면지와 표지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옵션을 장착했으며, 4×6 8절 무선 작업 시 정합+무선+삼방에 이르기까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박종하  
대표

## “전공정 전산화 실현”



**아인제책사로 새출발하게 된 소감은.** 분업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생산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오랜 준비를 거친 결실을 드디어 맺게 되어 기쁘다.

### 문덕인쇄와 아인제책사의 강점

은. 디자인 기획에서 CTP 디지털 교정, 인쇄, 제책의 전 과정을 갖춘 원라인 토틸 시스템이다. 아인제책사의 최신 설비 이외에도 문덕인쇄 본사에는 이미 2005년부터 CTP를 도입했으며, 인쇄실에는 국전 6색 인쇄기 2대와 4색 인쇄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 ERP시스템을 도입, 전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함으로써 작업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